

3·1 운동 정신과 독립: 예이츠 시에 나타난 아일랜드 독립에 대한 열망

3·1 Korea Resistance Spirit: Yeats' Aspire for Irish independence

황인경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영문학)

예이츠의 생애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커다란 아픔을 겪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아일랜드의 독립 투사였던 모드 건(Maud Gunne)에 대한 애절한 사연과 영국에 의해 무너져 내려가는 사랑하는 조국, 아일랜드가 사라져가는 위기 속에서 그의 글 속에서 발휘한 영혼의 노래는 그 어느 시인보다 더 절절한 갈구가 엿보이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들 중 일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혜택 속에서 편안하게 시를 쓰거나, 혹은 마약을 심취하면서 시를 표현한 작가 있는 반면, 예이츠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사치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가 쓴 창작의 고통은 시 자체를 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상황들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 사치스러울 정도로 편안하지 못한 그의 모습이 창작의 고통이었던 것이다. 법률가로 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의 아버지 마저도 아버지 마저도 페인트공으로 전락하여 일을 하는 등의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생활을 하였던 그에게 있어서 종교 마저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임이 미루어 짐작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이츠는 잃어버린 삶들을 종교에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비범한 확신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가 반기독교이거나, 비기독교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지만, 그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단정짓기 전에 그가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의 시에서 이교도적이거나 주술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에게 저항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 유럽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앞세우면서, 로마 가톨릭과의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 유럽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적인 팽창에 앞장서면서, 예이츠는 나름대로의 아일랜드의 독립과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와 반하는 아일랜드의 전설이나 신화를 내세우는 신비주의로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려 하였던 것이다. 기독교와는 다른 이교도적인 것들을 내세운 것은 기독교가 더 이상 구원을 해주거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회의감과 상실감으로 가득찬 시적인 표현들이 그의 시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그에게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절대자에게 의지 하려는 심적인 동기와 내재적인 갈등이 그의 시 속에서도 또한 내포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각각의 나라들이 독립을 내세우고 민족성을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하거나, 종교정쟁을 내세우면서, 로마 가톨릭과의 분립 혹은 독립을 내세우는데 개신교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예이츠의 경우는 이러한 명분도 세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아일랜드를 바라보면, 아일랜드의 민족 정신과 혼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아일랜드가 독립되고 안정된 국가 였다면, 사랑하는 모드 건과 결혼하여 편안한 가정 생활을 꿈꾸어 왔던 그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독립 운동에만 집중해 온 모드 건에게는 예이츠의 이러한 사랑에 대한 구걸도 하찮고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모드 건 역시 예이츠와의 낭만적인 사랑을 할 없는 시대적인 아픔이고 시대적인 희생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연인들의 사랑은 독립 운동과 민족주의의 운동을 가장 높은 상위의 선택에서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낭만적인 사랑

보다는 아일랜드의 독립이 더 소중하였던 것이다. 서정성이 짙고 자연에 대한 묘사가 정겨운 『이니스프리의 호수』(*The Lake Isle of Innisfree*)라는 시 속에서도 이미 그가 걸어야 하는 길은 회색빛(grey)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깊은 곳에 사랑이라는 소중한 단어를 가슴에 묻고 이니스프리의 호수에서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는 영혼의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일랜드라는 바로 자기 나라에서 사랑과 낭만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독립을 이루지 못한 그의 열망은 이루지 못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사랑의 슬픔』(*The Sorrow of Love*)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연인인 모드 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절망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지만, 트로이 목마에서 보여준 것처럼 단지 미인이라는 헬렌을 차지 하려고 나라끼리 전쟁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영웅은 슬플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예이츠는 모드건을 차지 하려고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그는 자기가 슬픈 영웅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그가 아일랜드의 독립이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대한 영웅들이 안타깝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일랜드의 영웅들이 비참하게 쓰러져 가는 나라의 모습이 바라보는 비극적인 상황과 비슷한 감정이입이 그의 시속에 투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 세계는 언제나 실낙원인 것이다. 실낙원의 모습이 보여진 『아담의 저주』(*Adam's Curse*)가 아직도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과도 다름이 없는 처참한 아일랜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시가 바로 재『재람』(*The Second Coming*)이란 시이다. 예수의 탄생도 악몽의 재현으로 바라보는 마술적(Occult)인 행위와 의식 또한 예수의 부활은 보이지를 않고 악순환적인 (gyre)의 모습만이 보여지고 있고, 베들레헴에서는 괴물의 탄생으로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악순환적인 상황이 재현된 시로 그는 아일랜드가 처한 현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저항과 항거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다. 이와같이 아일랜드의 민족성과 독립을 위해 싸워나가는 시인을 시 속에서 저항의 의지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이츠를 민족 시인이라고 불리워질 수 밖에 없다. 예이츠와 모드건은 아일랜드의 독립만을 위해 싸워온 투사였고, 영웅이었지만,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 싸워나가는 아일랜드의 영웅들은 그리스의 비극적 서사시의 주인공일 수 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저항하는 것은 독립을 위해 개신교를 선택한 영국의 모순된 행태를 비판한 시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독교가 희망적이기는 하나, 영국의 제국주의의 모습에서 빛바랜 기독교의 모습이 엿보이고 있는 시(詩)들이지만 아일랜드에서 복락원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절대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독립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예이츠의 시(詩)에서 보여진 그의 정신 세계는 아일랜드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영국의 속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아일랜드의 현실을 반영하였다. 그는 영국의 식민지라는 현실 속엿 방향하고 급기야는 반기독교적인 모습인 탕자의 모습- occult- 으로 밖에 보일 수 없지만, 이것은 일제 강점기에 처한 우리 나라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도 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방탕적 애국'이 일본과 저항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민족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추구하는 것들과는 항상 반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맥락에서 바라볼 때, 예이츠의 탕자의 모습으로 일관된 행동은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충실한 기독교 신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영국을 위한다고 생각한 예이츠 였기 때문에 그에게서 유독 이교도적인 색채가 나온 것은 일종의 영국에 대한 저항이고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찾고자한 독립에 대한 의지가 철두철미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다양한 서정성 담긴 시들이 위에서 보듯

이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반항적인 시를 쓰는 것이 영국이라는 제국주의에 저항한 시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사항이다. *Adam's Curse*와 *The Second Coming*이라는 시를 중심으로 *The Lake Isle of Innisfree* 와 *Down by the Salley Garden*이란 시를 살펴 보면서 반(半)기독교적인 애국적 방탕 시인으로서 예이츠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저항 시인 예이츠

“잉글랜드”의 민속 분야를 위해서, 바로 오늘날까지도 가능한 한 그림 형제가 독일인들을 위해 했던 것과 같은 작업을하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켈트 지역에 대해서는 그토록 고도의 목적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 지역에서는 소재들이 너무도 풍부하므로 그림 형제의 모든 일파들의 재원이 이러한 보고로 가득찬 분야를 소진시키는 부담을 지게 만들 소지가 있고, 켈트의 그림 형제는 켈트인들 자신이거나 하여튼 게일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북부 고지대의 새롭게 소생한 애항심을 위한 과제가 있다. 나는 그저 그 지역을 둘러보고 켈트라는 포도나무에서 몇 개의 대표적인 포도송이만을 가지고 돌아왔을 뿐이다. 켈트인들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그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조지프 제이콥스, 17)¹⁾

윌리엄 예이츠는 1865년에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인 John Butler Yeats와 그의 형인 Jack 역시 이름있는 화가였다. 그도 화가 공부를 하였으나 런던과 더블린을 오고가면서 불우한 생활 속에 그림공부를 맞췄다. 예이츠 집안의 아이들은 Sligo라는 곳에서 어머니 대신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곳에서 아일랜드의 자연을 사랑하면서 성장하였다. 더블린에서 예이츠는 예술 학교를 다녔고 그의 친구인 Geroge Russel에 의해서 다양한 occult 의 양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성적인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이러한 주술적인 신비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가톨릭 국가였던 아일랜드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신론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으로 가득찬 가정에서 보낸 나날들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톨릭조차도 이러한 아일랜드를 구해주지 못하다는 자괴감에서 나온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해체가 되어 온 듯 하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아일랜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절실하였고, 민족 시인으로서의 예이츠는 독립혁명가인 모드 건과도 동지 의식을 갖고 낭만적인 사랑을 나누지만, 그들 역시 아일랜드의 독립이 그들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기울어져가는 아일랜드라는 나라 안에서 그들의 낭만적인 사랑은 사치에 불과 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이츠는 성경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일 수 밖에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동학 농민운동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조선이 기울어져 가는 이유는 우리 나라의 토착 종교를 살리지 못해서 이렇게 대한 제국이 넘어갔다고 생각하여 그들은 서양인인 선교사 역시 배척하였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인 단군 신화를 앞세우면서 나라의 독립을 찾으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 뿌리 깊이 내린 토착 샤머니즘에 관심을 가졌음에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가톨릭 국가나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친 개신교 국가이 든지 간에 이 두 국가들은 사랑과 용서와 죄사함이라는 구원에 관한 문제 보다는 제국주의의 욕망으로 가득찬 나라로

1) 서민석. 역., 『켈트 족 옛 이야기』, 고양: 현대지성사, 2003.

보여지는 예이츠에게 있어서 이러한 로마 가톨릭 이나 개신교에 대한 교리는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쓴 시는 아일랜드의 자연을 찬미하거나, 반(反) 기독교적인 혹은 반(反)성경적인 자세로 시를 써 내려갔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성경적이지 않는 『아담의 저주』 *Adam's Curse*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여름의 끝자락 우리 함께 앉아 있었다.
당신의 절친한 친구인 그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성과
당신과 내가. 그리하여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내가 말했다. "한 줄을 쓰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순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깨맸다 풀었다 하는 우리 일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뻘 뻘하게 부엌 바닥을 긁거나
극빈 노인네처럼 날씨와 상관없이 돌이나 깨는 것이
더 나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소리들을 엮어 내는 것이
이 모든 일들보다 더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 순교자들이 속인이라고 부르는
은행원이나 학교 선생님, 그리고 성직자들과 같은
시끄러운 사람들에게는 게으름뱅이로 비치지요."

그 말에
저 아름답고 부드러운 여성이 바로 대답했다.
정말이지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하고 나지막하다는 걸 알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가슴앓이를 알아챌 그녀가.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비록 학교에서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워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내가 말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훌륭한 것 치고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너무나 고귀한 예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기는
그런 연인들도 한때 있었어요. 그들은 한숨을 쉬며
곧잘 그럴듯한 표정으로 아름다운 옛 책에서
예들을 인용하곤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그야말로 쓸데없는 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는 보았다, 낮의 마지막 깜부기가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달을, 떨리는 청록빛 하늘에서,
마치 별 주변에 밀려왔다 사그라지는
시간의 물결에 씻기고 나날의 세월 속에 부서진
조가비처럼 닳아빠진 달을.

나는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귀에 들려줄 생각을 했다.
당신은 아름다웠고, 내가 당신을
옛날의 고귀한 방식으로 사랑하려 애썼음을,
그리고 그때는 모두 행복한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 우리는
저 텅 빈 달처럼 마음 지치게 되었다는 생각을.

Adam's Curse

We sat together at one summer's end,
That beautiful mild woman, your close friend,
And you and I, and talked of poetry.
I said, "A line will take us hours maybe;
Yet if it does not seem a moment's thought,
Our stitching and unstitching has been naught.
Better go down upon your marrow-bones
And scrub a kitchen pavement, or break stones
Like an old pauper, in all kinds of weather;
For to articulate sweet sounds together
Is to work harder than all these, and yet
Be thought an idler by the noisy set
Of bankers, schoolmasters, and clergymen
The martyrs call the world."
And thereupon
That beautiful mild woman for whose sake
There's many a one shall find out all heartache
On finding that her voice is sweet and low
Replied, "To be born woman is to know --
Although they do not talk of it at school --
That we must labour to be beautiful."

I said, "It's certain there is no fine thing
Since Adam's fall but needs much labouring.
There have been lovers who thought love should be
So much compounded of high courtesy
That they would sigh and quote with learned looks
precedents out of beautiful old books;

Yet now it seems an idle trade enough."
We sat grown quiet at the name of love;
We saw the last embers of daylight die,
And in the trembling blue-green of the sky
A moon, worn as if it had been a shell
Washed by time's waters as they rose and fell
About the stars and broke in days and years.
I had a thought for no one's but your ears:
That you were beautiful, and that I strove
To love you in the old high way of love;
That it had all seemed happy, and yet we'd grown
As weary-hearted as that hollow moon.

“그렇지만 순교자들이 속인이라고 부르는
은행원이나 학교 선생님, 그리고 성직자들과 같은
시끄러운 사람들에게는 게으름뱅이로 비치지요.”

위의 대목에서 보듯이 아담의 저주 이후에도 복락원의 이미지는 안보이고, 죄를 짓는 인간이 모습만이 비춰지고 있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회복되지 못하는 역사의 순환이 엿보이고 있다.

실낙원의 이미지가 엿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약에서의 모습이 신약에서 회복되는 역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회의적이고, 자괴감을 나타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직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에서 『재림』(*The Second Coming*)의 이미지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도 예수의 탄생은 보이지를 않고 괴물만이 탄생되고 회복의 역사 대신 “가이어”라는 순환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

< 재림 再臨 >

돌고 도는 확산되는 가이어,
매는 조련사의 말을 듣지 못한다.
사물은 흩어진다. 중심은 지탱되지 않는다.
순전한 무질서가 세상에 풀어지고
핏빛 어두운 조수가 풀어지고, 세상 도처에서
순결의 儀式이 그 물속에 함몰한다.
가장 선한 자들은 모든 신념을 잃지만,
가장 악한 자들은 걱정에 차 있다.

확실히 어떤 계시가 다가왔다.
확실히 재림이 가까워 왔다.
재림! 그러한 말이 나오자마자

우주의 혼에서 거대한 이미지가
내 시야를 어지럽힌다. 사막 모래사장의 어디선가
사자의 몸을 하고 인간의 머리를 한 형상이
텅 빈 태양처럼 공허한 눈으로
서서히 허벅지를 움직이는 동안에
주위에는 성난 사막의 새들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선회한다.
다시 어둠이 내린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이천년이 흔들리는 요람에 의해
악몽에 시달렸다는 것을,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마침내 그의 시간을 맞이하여
베들레헴을 향해 태어나려고
웅크리고 걷고 있는가?

<The Second Coming>

TURNING and turning in the widening gyre
The falcon cannot hear the falconer;
Things fall apart; the centre cannot hold;
Mere anarchy is loosed upon the world,
The blood-dimmed tide is loosed, and everywhere
The ceremony of innocence is drowned;
The best lack all conviction, while the worst
Are full of passionate intensity.
Surely some revelation is at hand;
Surely the Second Coming is at hand.
The Second Coming! Hardly are those words out
When a vast image out of Spiritus Mundi
Troubles my sight: somewhere in sands of the desert
A shape with lion body and the head of a man,
A gaze blank and pitiless as the sun,
Is moving its slow thighs, while all about it
Reel shadows of the indignant desert birds.
The darkness drops again; but now I know
That twenty centuries of stony sleep
Were vexed to nightmare by a rocking cradle,
And what rough beast, its hour come round at last,
Slouches towards Bethlehem to be born?

에이츠는 詩 <재림 The Second Coming>을 1919년에 쓴다.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을 의미하지 않는다. 에이츠는 <재림>을 예언시라고 말하며, 그 예언은 기독교 영지주의를 따른다. 에이츠는 존재의 통일(unity of being)을 추구한 시인으로서 자신의 독특한 사상체계를 지니고 그 체계에 따라 역사의 순환원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율배반과 조화의 우주관을 적용하여 역사의 한순간을 조명한 시들이 많다. 역사 이해의 형식으로 그의 <재림>을 보면, 1919년이면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그에 대한 배상 문제나 인플레이 등으로 독일 등지에서 파시즘이 발흥하려고 하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기이다. 20세기의 시작은 오히려 19세기 말에 비해 종말론적이고 운명론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출처: 에이츠의 詩 『재림』 *The Second Coming* 문학예술 범주)

그가 쓴 시의 문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시어들로 가득차있다. 기독교의 영지주의라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의 시어들로 쓰인 이유는 이러한 켈트족의 샤머니즘의 전통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혹은 그는 "실제로 그는 신지학협회(Theosophical Society)나 장미십자회(Rosicrisian) 등의 신비학에 관여하기도 한다.

돌고 도는 확산되는 가이어"는 문명의 발전과 쇠퇴를 말하고, "매(falcon)는 조련사(falconer)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기독교(falcon)가 이제는 중심되는 힘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조련사(falconer)는 아마도 예수님을 의미할 것이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독교를 대신하여 "사나운 짐승"인 beast와 "무질서"가 중심에 들어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질서하고 혼란한 종말의 문명이거나 사나운 짐승 같은 독재나 폭압에 의한 짓눌린 평화, 오로지 둘 중 하나인 것일까? 그 어느 것이든 우리에게는 이제 악몽만 남은 것일까? (출처: 에이츠의 詩 『재림』 *The Second Coming* 문학예술 범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우매함 때문에 이 세계가 힘들어지고, 아일랜드가 타락하고 몰락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면서도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이어에 대한 운명은 기독교를 모르고 지나쳐 버리고 마는 영국 제국주의의 위선을 비판한 시라고도 볼 수 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를 사랑한 그에게 있어서 성직자가 아일랜드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고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한 이상 그에게 있어서 모드 건에 대한 사랑에 애절함과 사랑하는 아일랜드의 몰락 속에서 그는 모든 것들이 회색빛일 수 밖에 없다.

아일랜드의 자연을 노래한 이『이니스프리의 호수의 섬』(*The Lake Isle of Innisfree*) 시는 독립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아일랜드와 그 혁명가인 모드 건에 대한 애절한 사랑 얘기를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뤄나가면서 쓴 시이다. 이니스프리호수의 섬은 실리고(Siligo)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쓴 서정성의 시이다.

이니스프리 호수의 섬

이니스프리의 호수섬 나 이제 일어나 가리라, 이니스프리로 가리라.
거기서 진흙과 가지로 작은 오두막집을 지으리라.
아홉 이랑 콩밭을 일구고 꿀벌 집을 지으리라.
그리고 별이 웅웅대는 숲에서 홀로 살리라.

그리하여 거기서 평화롭게 살리라, 평화는 천천히 방울지듯 오므로.
귀뚜라미 노래하는 곳에 아침의 베일로부터 떨어지는 평화
한밤엔 만물이 희미하게 빛나고 정오에는 보랏빛으로 빛나는 곳,
그리고 저녁엔 방울새의 날개소리로 가득한 곳.

나 이제 일어나 가리라, 밤이나 낮이나
호수의 물이 호숫가에 나지막이 찰랑대는 소리를 듣나니
길에서나, 회색 도로 위에서, 내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소리를 듣나니.

The Lake Isle of Innisfree

The Lake Isle of Innisfree I will arise and go now, and go to Innisfree,
And a small cabin build there, of clay and wattles made:
Nine bean-rows will I have there, a hive for the honey-bee;
And live alone in the bee-loud glade.

And I shall have some peace there, for peace comes dropping slow,
Dropping from the veils of the morning to where the cricket sings;
There midnight's all a glimmer, and noon a purple glow,
And evening full of the linnet's wings.

I will arise and go now, for always night and day
I hear lake water lapping with low sounds by the shore;
While I stand on the roadway, or on the pavements grey,
I hear it in the deep heart's core.

위에서 보듯이 회색빛 도로가 아일랜드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운들 회색 빛 도로위에선 깊은 마음을 들 곳은 없기 때문이다. 이성으로 가득차고 딱딱한 이미지의 회색 빛 도로는 solid 할 뿐이다. 더 이사 부드러운 사랑의 열정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그려내고 있다.

*Down By the Salley Gardens*의 시는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Siligo 라는 마을에 어느 나이 든 농사짓는 여인의 노래 소리를 기억하면서 쓴 시이면서, 아일랜드의 향수가 듬뿍 느껴지는 시이다.

버드나무 정원을 지나 내 사랑과 나는 만났어요
그녀는 눈처럼 흰 작은 발로 버드나무 동산을 건넜지요
그녀는 나뭇잎 나무에서 자라듯 사랑을 느긋하게 하라 했지만
난 그때 젊고 어리석어 그녀의 말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시냇가 어느 들녘에 내 사랑과 나는 서 있었어요
그녀는 눈처럼 흰 손을 내 기울인 어깨에 얹었지요
그녀는 풀들이 둔덕에서 자라듯 인생을 느긋하게 살라 했지만
난 그때 젊고 어리석어 이제야 온통 눈물로 가득하네요.

Down by the salley gardens my love and I did meet;
She passed the salley gardens with little snow- white feet.
She bid me take love easy, as the leaves grow on the tree;
But I, being young and foolish, with her would not agree.

In a field by the river my love and I did stand,
And on my leaning shoulder she laid her snow - white hand.
She bid me take life easy, as the grass grows on the weirs;
But I was young and foolish, and now am full of tears

아일랜드가 지는 석양의 모습처럼 모드 건과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 속에서 그리움과 향수를 느끼는 그러한 환경에서 예수의 재림은 더 이상 기대볼 수 없음을 나타나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일 경우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정신은 없어지고 있음을 향한 개신교 국가인 영국을 향한 저항과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외친 시라고 볼 수 있다.

II. 나오는 말

가장 성경적인 소재에서 가장 반(反)성경적인 내용의 시를 씀으로써 예이츠는 영국이 가장 싫어하는 반기독교적인 요소와 종교개혁에 대한 회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개혁을 통해 로마 가톨릭 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영국이 오히려 아일랜드를 로마 교황청처럼 다스리려는 정책에서 그는 저항을 해야만 했고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해 얻은 독립 국가의 나라에 대한 모순으로 가장 영국적이지 않는 시어를 선택-주술적이거나 켈트 족의 전설 등 이교도적인 것들을 앞세움으로써 방탕적 애국자로 저항을 하면서 아일랜드의 독립과 기원을 염원한 민족 시인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